

찬란한 광채에 가려진 르네상스의 어둠

르네상스 미술 그 찬란함과 이면

다카시나 슈지 지음, 이연식 옮김

일반적인 르네상스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 세계로 관점이 이동했다는 것. 다시 말해 '암흑의 시대'에서 각각의 시대로 초점이 옮겨졌는데 신이 중심이던 때는 현실을 도외시했다. 교회의 도그마는 눈앞의 세상에 대한 생생한 현상을 애써 눈감게 했다.

역사가 이폴리트 아돌프 뤼은 '이탈리아 기행'에서 15세기 피렌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때때로 넘치는 시대, 영혼의 청춘이 숨쉬는 찬란한 여명,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현실 속의 사물에 깃든 시정(詩情)을 발견했다. 이 시대에는 그저 하나의 묘선에 감동의 떨림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르네상스 시기에는 밝음만 있었을까? 개인의 서정과 현실에 대한 역동적 인식만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모든 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 곁항의 관계를 이룬다. 르네상스에도 여전히 중세적인 분위기가 당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화려했던 르네상스 이면을 조명한 '르네상스 미술 그 찬란함과 이면'은 중세에 발을 걸치고 르네상스 속살을 들여다 본 책이다. 저자인 일본 미술사학계의 수장 다카시나 슈지는 "르네상스 특유의 이상 세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동안 미술사학 지식을 대중들에게 풀어주었던 저자는 '일본의 고풍



르네상스 화려한 작품 이면에는 '규율'로 대변되는 중세시대 특징이 혼재돼 있다. 사진은 티치아노의 '성애와 속애'.

리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시각이 독특하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은 이교의 사상과 기독교 교리의 결합으로 발전된다. 저자에 따르면 피렌체에서는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작품이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비너스의 탄생'과 '봄'은 주제와 내용 모두 난해한 특징을 지닌다. 보티첼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 비너스를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이미지에 대입했다.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는 피렌체를 이상세계로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성스러운 사랑인지 세속적인 사랑인지 구별할 수 없는 티치아노의 명작 '성애와 속애'는 중세적인 것과 르네상스적인 것이 교묘하게 투영된 작품이다. 중세 이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금기시했는데, 육망을 부정하는 것이나 신배였다.

티치아노의 작품에서 육체를 드러낸 알몸의 여성은 육체적 욕망 '속애'를 상징한다. 이와 달리 웃으며 몸을

가린 여성은 '성애'를 함의한다. 저자는 "어느 쪽이 '성애'이고 '속애'이든 간에 언뜻 봐도 화면의 주역인 두 여성은 쌍둥이처럼 서로 흡사한 모습이지만 한껏 대조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부연한다.

여성들은 쌍둥이처럼 닮은 데다 금속으로 된 용기를 들고 있고, 좌우의 배경도 대조적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공통점을 지녔다.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루벤스의 작품 '레우키포스 딸들의 약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쌍둥이 신 디오스쿠리아에게 붙잡힌 두 여성의 구도는 입체적이다. 분명 화면에는 두 명인데, 실상은 한명의 모델을 앞모습과 옆모습으로 그린 것이다.

그렇듯 르네상스 시대는 찬란한만큼 매혹적인 어둠이 혼재돼 있었다. '낭만'과 '규율'의 어슬어슬한 융합이 아니었을까.

〈재출판 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 가 아닙니다=시인 류근과 현직 검사 진해원이 한국의 대표 서정시 81편을 선정해 엮은 시선집이다. 1920년대 김소월부터 최근 박준 시인까지 아우른다. 다섯 개의 장으로 엮인 시집은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 없이 시 전문과 시인 소개만으로 구성됐다. 이와함께 시인과 검사가 서정시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덧붙였다. 〈해방·1만4000원〉



▲고구려7=김진명의 '고구려' 1부 완결판이다. '고구려'는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당시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마주했던 다섯 왕, 미천왕-고국양왕-소수림왕-고국양왕-광개토대왕을 다룬다. 제7권 '고국양왕편'은 소수림왕 구부로부터 갑작스럽게 태왕의 권력을 넘겨받은 동생 이련의 고뇌로부터 시작되며, 두 형태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실었다. 〈이타북스·1만5800원〉



▲생물학적 마음=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생명공학부 교수인 저자 앨런 재서노프가 인간과 뇌를 동일시하는 뇌과학 통념을 반박한다. 저자는 뇌가 신체 및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유기적인 기관임을 밝힘으로써 인간 존재와 마음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또, 뇌가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라는 보편적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김영사·1만9800원〉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 분과인 '물꼬방' 교사 6명의 코로나 19 시대 온라인 수업 일기다. 저자들은 교실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질문들이 온라인에서 쏟아지며 줌(Zoom)을 통한 대화로 아침 운동을 하고 점심 시간에 김밥을 만들어 먹으며 서로 간의 거리를 '사이'로 만들어나갔다고 말한다. 〈서해문집·1만6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돌아오지 않은 우리시마호=1945년 8월 광복 직후 일어났던 우리시마호 침몰 사건과 일본의 만행, 그 시절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깊이 있게 담아낸 창작 동화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에 앞장서 온 이규희 작가는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왜 낯선 일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강제 징용'과 '강제 동원'의 실체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바우술·1만500원〉

감자 봉지를 들고 집으로 오는 도중 진주는 혼란에 빠지는데... 어찌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엄마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아빠, 이렇게 못한 엄마 아빠를 진주는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바람의아이들·1만2000원〉

▲감자가 싫은 날=부모의 도덕적 위기 앞에서 갈등을 겪는 주인공의 이야기.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진주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노점상에서 엄마가 감자 한 봉지를 슬쩍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무거운

▲차기왕자=어느 아이처럼 양치를 싫어하는 주인공 차기왕자. 가족들은 차기왕자를 위해 성대한 차기왕자 파티를 열고, 백성들은 모두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양치를 한다. 차기왕자와 누나공주, 엄마마마, 아빠마마 등 재미있는 캐릭터와 치카치카, 차키차키, 푸카푸카, 작작작작 등 재밌는 입말을 통해 양치의 즐거움 등을 알려준다. 〈천개의바람·1만3000원〉

꿈꾸는 인간·애절한 사랑... 고독과 불안속에 피어난 걸작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

이진숙 지음



미술 관련 강의와 저서로 잘 알려진 이진숙의 '더 갤러리 101' 첫번째 권 '인간다움의 순간들'을 읽은 이들이라면 3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의 '다음 이야기'를 열려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 예술가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해낸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은 미술 뿐 아니라 문학, 역사 등이 어우러져 흥미롭게 읽힌다.

출판사 '둘레개'가 기획한 '더 갤러리 101' 시리즈는 바흐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 음악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101곡을 소개해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은 문학수의 '더 클래식 101'의 '미술 버전'이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등을 다룬 첫 번째 책에 이어 1년 4개월만에 출간된 두 번째 책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그림과 함께 온전한 내가 될 때'는 라파엘전파부터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미래주의, 표현주의, 추상미술을 아우른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네, 르누아르, 세잔, 반 고흐, 피카소, 칸딘스키 등 모두 34명이다.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미학 속에서 인간의 풍부함을 드러낸 것이 미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이번 책에서도 역시 다채로운 작품을 선정해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간다.

두번째 책은 예술 속에 비친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소위 근대의 형성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의 인간은 기어코 자기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꿈꾸는 존재가 돼"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예술의 기획자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기획자가 되고자 했다", 그래서 혼자 자신만의 길을 찾으며 고독을 견뎌던 젊은 예술가들은 슬한 작품을 쏟아낸다. 저자는 "벨 에포크와 데카당스의 시대이자 새로운 희망의 20세기와 세계화, 개인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 삶의 기초가 놓였던 시대"에 작가들은 어떤 예술작품을 창조했는지 주목한다.

책에는 저마다의 고독을 품은 작가와 작품이 소개된다. 평생 우울과 불안을 안고 살아야했던 몽크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는 쏟아지는 별이 눈부신 고흐의 동명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와 비교하면 저자의 표현처럼 '겨우' 빛나는 별의 모습이 애잔하게 다가온다. 화가 모딜리아니가 25점이나 그린 아내 잔 에뷔테른의 초상화에선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몸을 던진 그녀의 애절한 사랑이 어른거리고, 마티스의 작품에서는 흥겨움과 기쁨이 묻어나온다.

책은 또 표지화로 사용된 '나쁜 예감'의 작가 밀레비치, 생계를 위해 내몰린 술집 여인과 무희들을 화폭에 담은 로트레크, 수많은 작가의 뮤즈에서 한 인간이자 예술가로 우뚝 선 수잔 발라동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시리즈 3권은 다다이즘에서 시작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미술을 다룰 예정이다.

〈둘레개·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